

텍사스 기쁨의 교회 Joyful Community Church of Texas

2026 성경일독 & Family Worship (5 월 May)

	리딩지저스 성경일독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1st	시편 2 Psalm 37-72	그리스도의 낮아지심
2nd	시편 3 Psalm 73-109	그리스도의 높아지심
3rd	시편 4 Psalm 110-150	부르심. 칭의
4th	잠언 Proverbs 1-31	성화, 죽음, 영화
5th	전도서, 아가 Ecclesiastes and Song of Songs	율법, 십계명

우리 집 가정 예배는 ( )요일 ( )시에 ( )에서 드립니다.

Our family worship is held on ( ) day at ( ) o'clock in ( ).

- 온 가족이 함께 시간과 장소를 약속하세요.  
Decide on the time and place together as a family.
- 가정 예배지를 개인 묵상용(QT)으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You can also use the family worship guide for personal devotions (QT).

영어권: 자녀들과 함께 읽는 New Morning Mercies for Teens (Paul Tripp)

- 매일 잠 자기 전에 하루 한 장씩 읽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Every night before bed, read one chapter with your children and share a time of prayer together.

교회 홈페이지([www.joyfulpca.org](http://www.joyfulpca.org))를 통해 가정 예배지를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 1<sup>st</sup> Week 시편 2 Psalm 37-72

**찬송:** 가족 중에 한 명이 선곡을 합니다.

**Praise:** One family member selects a song of praise.

**기도하기:** 가족 중에 한 명이 기도를 합니다.

**Prayer:** One family member leads the prayer.

**가족 중에 한 명이 오늘의 메시지를 낭독합니다.**

**Message:** One family member reads today's message aloud.

### [오늘의 메시지] Today's Message

시편의 시들은 내용과 분위기, 구조와 표현에 따라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먼저, 절반 가까이는 탄식시입니다. 고난과 혼란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탄식시가 다른 유형의 시보다 많은 것은 타락한 세상에서 살아가는 현실이 절대 만만치 않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대표적 유형은 인정시입니다. 고난 중에 기도를 드리고 응답받은 이들의 시입니다. 이들은 구원의 감격을 공동체와 함께 선포하며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성품과 신실한 언약을 묵상하며 드리는 묵상적 찬양시가 있습니다.

세 가지 유형의 시는 우리가 경험하는 정상(orientation)-비정상(disorientation)-재조정(re-orientation)의 흐름을 반영합니다. 묵상적 찬양시는 모든 일이 평안하게 흘러가는 '정상' 시기를 보여 주고, 탄식시는 환란 중에 방향을 상실한 '비정상'적 현실과 그래도 끝이 아니라는 소망을 드러내고, 인정시는 하나님이 회복하시는 '재조정'을 생생하게 전합니다.

이번 주는 시편 37-72 편을 통독하면서, 개인의 탄식이 공동체의 예배로 바뀌는 시, 고난 중에도 의와 평강으로 다스릴 참된 왕을 소망하는 시를 묵상하면서, 장차 오셔서 만물을 온전히 회복하실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The psalms can be broadly categorized into three types based on their content, mood, structure, and expression.

First, nearly half are laments — prayers of crying out to God in the midst of suffering and confusion. The fact that laments outnumber the other types reflects the reality that living in a fallen world is anything but easy. Another major type is the psalm of acknowledgment. These are written by those who prayed in the midst of hardship and received God's answer. They proclaim the joy of salvation together with the community and offer thanks and praise to God. Finally, there are psalms of meditative praise, which arise from reflecting on God's character and his faithful covenant.

These three types mirror the rhythm of human experience: orientation, disorientation, and re-orientation. Psalms of meditative praise reflect times of "orientation," when life flows in peace and order. Laments expose the "disorientation" of a reality thrown off course by trouble — while still holding out the hope that this is not the end. And psalms of acknowledgment vividly bear witness to the "re-orientation" God brings through restoration.

This week, we will read through Psalms 37–72. As we meditate on psalms where personal lament gives way to communal worship, and on psalms that long for a true King who will reign with righteousness and peace even in the midst of suffering, may this be a time when we fix our eyes on Jesus — the One who is coming to fully restore all things.

**[은혜 나누기] Faith Sharing**

이번 한 주간 성경을 통독하면서, 기억에 남는 말씀을 나누어 봅시다.

As you read through the Bible this week, share a verse or passage that stood out to you.

### 적용 Application

1. 다윗을 비롯한 시편의 시인들은 수많은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탄식합니다. 혹시 하나님 앞에서 슬픈 마음을 털어놓고 탄식하는 걸 주저하거나 어려운 적 있나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2. 시편 42-43 편의 시인은 극심한 낙심과 불안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한 영혼의 갈급함을 고백합니다. 내 영혼이 갈급하다고 느낀 적이 있나요? 예수님께 나아가 영혼의 갈증이 채워진 경험이 있다면 함께 나눠 봅시다.
3. 시편은 개인의 감정을 넘어, 하나님이 행하신 구원의 역사를 공동체가 함께 기억하며 찬양하도록 이끕니다. 공동체가 함께 드리는 예배와 찬양에 어떤 마음으로 참여하고 있나요?

1. David and the other psalmists cry out to God in lament through countless trials and sufferings. Have you ever hesitated or found it difficult to pour out a grieving heart before God? What held you back?
2. The psalmist in Psalms 42–43 confesses a deep, soul-level thirst for God in the midst of overwhelming discouragement and anxiety. Have you ever felt that your soul was truly thirsty? If you have experienced coming to Jesus and having that thirst satisfied, please share it with the group.
3. The Psalms move us beyond personal emotion, calling the community together to remember and praise God for the mighty acts of salvation he has accomplished in history. With what kind of heart are you currently participating in our corporate worship and praise?

### **기도 Prayer**

서로의 기도 제목을 나누며 함께 기도합니다.

Share prayer requests with one another and pray together.

### **오늘의 감사 기도 Today's Prayer of Thanksgiving**

**주기도문으로 가정예배를 마칩니다. Close family worship with the Lord's Prayer.**

## 2<sup>nd</sup> Week 시편 3 Psalm 73-109

**찬송:** 가족 중에 한 명이 선곡을 합니다.

**Praise:** One family member selects a song of praise.

**기도하기:** 가족 중에 한 명이 기도를 합니다.

**Prayer:** One family member leads the prayer.

**가족 중에 한 명이 오늘의 메시지를 낭독합니다.**

**Message:** One family member reads today's message aloud.

### [오늘의 메시지] Today's Message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절망적인 순간은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언약 백성이 포로로 끌려갔던 때입니다. 시편 73-89 편은 바로 이때, 바벨론 포로기 전후를 배경으로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다윗과 세운 언약은 이제 끝난 것인가?"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하지만 깊은 탄식 속에서도 구원과 회복을 불러올 유일한 소망은 하나님뿐이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이 끝난 것인가라는 질문에 90 편 이후 시들은 믿음의 답을 보여 줍니다. 시인들은 눈앞이 캄캄한 때를 지나면서도 영원하신 하나님의 왕권과 통치를 바라봅니다. 그분의 구원 역사를 되새기고 감사와 찬양을 올립니다. 약속은 성취될 기미가 보이지 않지만, 약속하신 그분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의지해 나아가자고 초대합니다.

의인과 악인의 대조, 하나님의 통치, 종말론적 소망은 시편 전체를 관통하며, 이번 주 우리가 읽는 시편 73-109 편에도 이어집니다. 탄식이 찬양으로 변하는 여정을 묵상하며, 영원히 다스리시는 왕을 노래합니다.

The most desperate moment in Israel's history was when the temple in Jerusalem fell and God's covenant people were carried away into exile. Psalms 73–89 are set against precisely this backdrop — the period surrounding the Babylonian captivity. The psalmists raise a haunting question: "Is the covenant God made with David now finished?" Yet even in the depths of their lament, they confess that God alone is the one hope capable of bringing salvation and restoration.

The psalms from chapter 90 onward answer that question with the response of faith. Even as the psalmists pass through times of utter darkness, they lift their eyes to the eternal kingship and reign of God. They call to mind his saving acts in history and offer up gratitude and praise. The promises show no sign of fulfillment — and yet they live by faith, their gaze fixed on the One who made those promises. The psalms extend an invitation: to live not by what is visible, but by dependence on the word of God.

The contrast between the righteous and the wicked, the reign of God, and eschatological hope run as a thread through the entire Psalter — and they continue through Psalms 73–109, our reading for this week. As we meditate on the journey from lament to praise, let us sing together of the King who reigns forever.

### **[은혜 나누기] Faith Sharing**

이번 한 주간 성경을 통독하며, 기억에 남는 말씀을 나누어 봅시다.

As you read through the Bible this week, share a verse or passage that stood out to you.

### **적용 Application**

1. 시편 73 편에서 시인은 악인의 형통을 보며 낙심했지만, 성소에서 하나님의 공의의 뜻을 깨닫습니다. 오늘 나를 낙심하게 하는 것은 무엇이며, 그에 대한 답을 나는 어디에서 찾고 있나요?
2. 시편의 시인들은 하나님을 멀리 있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의 세밀한 기도까지 들으시는 가까이 계시는 분으로 믿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이 진리는 더욱 분명해져, 신약성경은 그분이 직접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신다고 말합니다(로마서 8:34). 이 사실을 믿을 때 내 기도 생활에 어떤 확신과 위로가 생기나요?
3. 시편 90 편 이후부터는 탄식시가 줄고, 기쁨과 감사로 예배드리자며 공동체를 초대하는 시가 많아집니다. 이런 변화는 하나님의 영원한 통치와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는 데서 출발합니다. 어려움과 탄식 속에서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원한 통치와 구원의 은혜를 붙잡고 계속 그분을 찬양하며 기뻐할 수 있을까요?

1. In Psalm 73, the psalmist falls into discouragement at the prosperity of the wicked — but in the sanctuary, he comes to understand God's just purposes. What is discouraging you today, and where are you looking for the answer?
2. The psalmists believed that God is not a distant figure but one who is near, listening even to our most private prayers. In Jesus, this truth becomes even clearer: the New Testament tells us that he himself intercedes for us at the right hand of God (Romans 8:34). When you truly believe this, what confidence and comfort does it bring to your prayer life?
3. From Psalm 90 onward, laments grow fewer, and psalms inviting the community to worship with joy and gratitude become more abundant. This shift begins with remembering God's eternal reign and the grace of his salvation. Even in the midst of hardship and lament, how can we hold onto God's eternal reign and saving grace — and keep praising and rejoicing in him?

### **기도 Prayer**

서로의 기도 제목을 나누며 함께 기도합니다.

Share prayer requests with one another and pray together.

### **오늘의 감사 기도 Today's Prayer of Thanksgiving**

**주기도문으로 가정예배를 마칩니다. Close family worship with the Lord's Prayer.**

### 3<sup>rd</sup> Week 시편 4 Psalm 110-150

**찬송:** 가족 중에 한 명이 선곡을 합니다.

**Praise:** One family member selects a song of praise.

**기도하기:** 가족 중에 한 명이 기도를 합니다.

**Prayer:** One family member leads the prayer.

**가족 중에 한 명이 오늘의 메시지를 낭독합니다.**

**Message:** One family member reads today's message aloud.

#### [오늘의 메시지] Today's Message

시편은 다양한 형식과 주제로 구성된 책으로, 각 시는 특정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와 찬양입니다. 시편 4 편은 다윗이 어려움과 압박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도움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그는 사람들의 비난과 거짓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별하셨음을 확신하며, 응답하실 것을 믿습니다.

다윗은 분노와 불안 속에서도 죄를 짓지 말고 마음에 잠잠히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권면합니다. 그는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뢰하라"고 말하며, 하나님 안에서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립니다. 비록 외적인 상황은 여전히 어렵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세상의 풍요보다 크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은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라고 고백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 속에서 안식을 누립니다.

이번 주에는 시편 73-106 편을 함께 읽으며, 고난과 혼란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배우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기쁨과 평안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The Psalms is a book composed of diverse forms and themes, with each psalm serving as a prayer or act of praise offered to God in a particular moment and situation. Psalm 4 is David's prayer of crying out to God for help in the midst of difficulty and pressure. Even surrounded by the accusations and falsehoods of others, he is confident that God has set him apart and trusts that God will answer.

In the middle of anger and anxiety, David counsels against sin and calls for quiet trust in God. He urges, "Offer the sacrifices of the righteous and trust in the Lord," and in doing so finds genuine joy and peace in God. Though the outward circumstances remain hard, he confesses that the joy God gives is greater than all the abundance the world can offer.

Finally, David closes with this confession: "In peace I will lie down and sleep, for you alone, Lord, make me dwell in safety" — resting in the peace that only God provides. This week, as we read through Psalms 73–106 together, may it be a time when we learn what it means to trust God in the midst of suffering and confusion, and personally experience the true joy and peace that only he can give.

### **[은혜 나누기] Faith Sharing**

이번 한 주간 성경을 통독하며, 기억에 남는 말씀을 나누어 봅시다.

As you read through the Bible this week, share a verse or passage that stood out to you.

### **적용 Application**

1. 시편 119 편은 하나님 말씀을 향한 사랑과 목상의 기쁨을 노래합니다. 성경 말씀을 가까이하고 꾸준히 읽어 가는 이 통독 훈련이 내 삶과 일상에 어떤 변화를 주고 있나요?
  
  2. 시편을 읽으면서 내 기도에 시편 구절을 넣거나 시편 말씀에 내 기도를 실어 본 적이 있나요? 시편을 통해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지식이나 삶에 대한 새로운 지혜를 얻는 것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3. 시편의 마지막은 강력한 외침으로 끝납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150:6). 장차 모든 피조물이 어린양의 보좌 앞에서 경배하는 그날을 그려 보고, 오늘 나의 예배와 찬양이 어떻게 달라져야 할지를 생각해 봅시다.
- 
1. Psalm 119 sings of the love for God's Word and the joy of meditating on it. How has this Bible reading plan — the discipline of staying close to Scripture

and reading it consistently — been bringing change to your life and daily rhythms?

2. As you have been reading the Psalms, have you tried weaving psalm verses into your prayers, or pouring your own prayers into the words of the psalms? Is there any new knowledge of God or fresh wisdom for life that you have gained through the Psalms?
  
3. The Psalms close with a powerful declaration: "Let everything that has breath praise the Lord. Praise the Lord" (Psalm 150:6). Picture the day when every creature will bow in worship before the throne of the Lamb — and consider how your worship and praise today ought to look different in light of that coming day.

### **기도 Prayer**

서로의 기도 제목을 나누며 함께 기도합니다.

Share prayer requests with one another and pray together.

### **오늘의 감사 기도 Today's Prayer of Thanksgiving**

**주기도문으로 가정예배를 마칩니다. Close family worship with the Lord's Prayer.**

#### 4<sup>th</sup> Week 잠언 Proverbs 1-31

**찬송:** 가족 중에 한 명이 선곡을 합니다.

**Praise:** One family member selects a song of praise.

**기도하기:** 가족 중에 한 명이 기도를 합니다.

**Prayer:** One family member leads the prayer.

**가족 중에 한 명이 오늘의 메시지를 낭독합니다.**

**Message:** One family member reads today's message aloud.

#### [오늘의 메시지] Today's Message

잠언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치는 지혜서입니다. 모세오경과 선지서가 하나님의 언약과 예언을 선포한다면, 잠언은 경건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서 발견한 지혜와 삶의 원리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잠언을 읽을 때는 이 기록이 일반적인 삶의 법칙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잠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1-9 장은 아버지가 아들에게 권하는 내용으로 지혜를 사랑하고 악에서 떠나라는 교훈입니다. 10-31 장은 개별적인 지혜들로, 다양한 상황에 지혜를 적용한 예와 그 결과를 보여 줍니다.

책의 첫머리(1:1)에서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고 지혜의 출처를 소개하는데, 이는 잠언의 말씀이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안에 있음을 보여 줍니다. 그래서 지식의 근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라고 선언합니다(1:7).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단순히 두려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며 그분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사는 것입니다. 참된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 시작하며, 그 뜻을 따르고 순종하는 데서 더욱 풍성해집니다.

신약성경에서는 그 지혜가 예수님 안에서 완전히 드러났다고 선언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고린도전서 1:24)이며, 잠언이 가리키는 완전한 지혜의 본체입니다. 한 주간 잠언을 읽으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참 지혜이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Proverbs is a book of wisdom that teaches God's covenant people how to live. While the Pentateuch and the Prophets proclaim God's covenant and his word through the prophets, Proverbs contains the wisdom and life principles that godly people discovered within God's created order. For this reason, when reading Proverbs, it is important to keep in mind that what is recorded here represents general patterns and principles for life.

Proverbs divides into two broad sections. Chapters 1–9 take the form of a father's counsel to his son, calling him to love wisdom and turn away from evil. Chapters 10–31 consist of individual proverbs, offering examples of wisdom applied across a wide range of situations and showing the consequences that follow.

At the very opening of the book (1:1), wisdom is introduced as coming from "the proverbs of Solomon son of David, king of Israel" — a framing that places the words of Proverbs squarely within a covenantal relationship with God. It is for this reason that the book declares the fear of the Lord to be the foundation of all knowledge (1:7). To fear the Lord is not simply to be afraid of him. It is to love God, to trust him, and to live by his Word as the standard for all of life. True wisdom begins with the fear of the Lord, and grows richer as we follow and obey his will.

The New Testament declares that this wisdom has been fully and perfectly revealed in Jesus. He is the wisdom and power of God (1 Corinthians 1:24) — the complete embodiment of the wisdom to which Proverbs points. As you read through Proverbs this week, may it be a time of walking with Jesus, the true Wisdom, with a heart that fears and honors God.

## [은혜 나누기] Faith Sharing

이번 한 주간 성경을 통독하며, 기억에 남는 말씀을 나누어 봅시다.

As you read through the Bible this week, share a verse or passage that stood out to you.

## 적용 Application

1. 잠언은 지혜의 근본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1:7; 9:10)이라고 합니다. 또한 그 지혜가 하나님과의 관계뿐 아니라 부부, 자녀, 부모, 이웃, 사회 등 모든 관계 속에서 드러나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내가 맺고 있는 여러 관계들 가운데 가장 약한 관계는 무엇입니까?
2. 이번 주에 잠언 한 구절을 내 상황에 맞게 적용해서 실천하는 계획을 세운다면, 어떤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겠습니까?
3. 예수님은 하나님의 지혜(고린도전서 1:24, 30)이시고,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모든 지혜가 숨겨져 있습니다(골로새서 2:3).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이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까요? 전자가 후자를 어떻게 가능하게

만들까요? 그리고 잠언 말씀대로 살지 못했을 때, 나는 어떻게 예수님께로 돌이켜 도움을 구할 수 있을까요?

1. Proverbs tells us that the foundation of wisdom is "the fear of the Lord" (1:7; 9:10). It also teaches that this wisdom must show up not only in our relationship with God, but in every relationship we have — with a spouse, children, parents, neighbors, and the broader community. Among the various relationships in your life, which one is the weakest right now?
2. If you were to take one verse from Proverbs this week and make a concrete plan to apply it to your specific situation, which verse would you choose, and how would you put it into practice?
3. Jesus is the wisdom of God (1 Corinthians 1:24, 30), and in him all the treasures of wisdom and knowledge are hidden (Colossians 2:3). How does looking to Jesus connect to living a life that fears the Lord? How does the former make the latter possible? And when you have failed to live according to the wisdom of Proverbs, how can you turn back to Jesus and seek his help?

### **기도 Prayer**

서로의 기도 제목을 나누며 함께 기도합니다.

Share prayer requests with one another and pray together.

**오늘의 감사 기도 Today's Prayer of Thanksgiving**

**주기도문으로 가정예배를 마칩니다. Close family worship with the Lord's Prayer.**

## 5th Week 전도서, 아가 Ecclesiastes and Song of Songs

**찬송:** 가족 중에 한 명이 선곡을 합니다.

**Praise:** One family member selects a song of praise.

**기도하기:** 가족 중에 한 명이 기도를 합니다.

**Prayer:** One family member leads the prayer.

**가족 중에 한 명이 오늘의 메시지를 낭독합니다.**

**Message:** One family member reads today's message aloud.

### [오늘의 메시지] Today's Message

전도서는 인생의 허무와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게 합니다.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1:2)라는 선언은 해 아래 사는 인생의 한계를 말하지만, 전도자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일상의 즐거움과 기쁨을 선물로 받으라고 권합니다.

전도서의 결론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12:13). 참된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는 삶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이 땅의 허무를 넘어,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맛보며 살아갑니다.

아가서는 한 남자와 한 여자의 뜨겁고 순결한 사랑을 노래합니다. 결혼 언약 안의 사랑과 헌신이 얼마나 귀한지 보여 주며, 사랑의 기쁨과 기다림, 서로를 향한 전인격적 헌신을 찬미합니다.

하지만 그 사랑은 단지 인간의 사랑에 머물지 않고, 신랑 되신 예수님과 신부 된 교회의 사랑을 드러냅니다. 우리는 종종 사랑에 실패하지만, 예수님은 값없는 신부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셨고, 십자가와 부활로 완전한 사랑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분 안에서 우리는 혼인 잔치를 기다리는 신부로 살아갑니다.

이번 주에는 전도서와 아가서를 읽으면서, 인생의 허무 속에서 참된 기쁨을 찾고, 불완전한 사랑에 둘러싸여 있지만 완전한 사랑을 주시는 분을 바라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Ecclesiastes invites us to look honestly at the vanity of life and, within it, to seek the purposes of God. The declaration "Vanity of vanities, all is vanity" (1:2) names the limits of life lived under the sun — but the Preacher does not stop there. He goes on to urge us to receive the simple pleasures and joys of daily life as gifts from God's hand.

The conclusion of Ecclesiastes is clear: "Fear God and keep his commandments" (12:13). True wisdom is a life lived in the fear of God, with eyes lifted toward the glory of heaven. In Jesus Christ, we are able to move beyond the emptiness of this earth and live as people who already taste the joy of the kingdom of God, now breaking into the world.

The Song of Songs celebrates the passionate and pure love between a man and a woman. It shows how precious love and commitment within the covenant of marriage truly are, and it sings of the joy of love, the longing of waiting, and the wholehearted devotion two people offer to one another.

Yet this love does not remain merely human. It points beyond itself to the love between Jesus, the Bridegroom, and the Church, his bride. We often fail in love — but Jesus gave himself for a bride who had nothing to offer, and through the cross and resurrection he brought perfect love to completion. In him, we live as a bride waiting for the wedding feast.

As you read through Ecclesiastes and the Song of Songs this week, may it be a time of finding genuine joy within life's emptiness, and of fixing your eyes on the One who offers perfect love to those of us surrounded by love that so often falls short.

## [은혜 나누기] Faith Sharing

이번 한 주간 성경을 통독하며, 기억에 남는 말씀을 나누어 봅시다.

As you read through the Bible this week, share a verse or passage that stood out to you.

## 적용 Application

1. 전도자는 “해 아래 삶은 헛되고 바람을 잡는 것”으로 묘사합니다(전도서 1:14). 최근에 경험한 인생의 허무나 반복되는 좌절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그때 어떤 마음이 들었나요?
  
2. 전도자는 세상의 수고와 쾌락이 헛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로 기쁨을 누릴 수 있다고 말합니다. 최근에 하나님이 주신 선물(관계, 건강, 기회, 시간, 자연 등)로 기쁨을 느꼈던 순간이 언제였나요? 그 일이 단순히 좋은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었나요?
  
3. 전도자는 젊은 날에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권면하고, 아가서는 순결하고 참된 사랑의 가치를 지키며 기다리라고 말합니다. 이번 주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를 내 삶의 어떤 부분에서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을까요? (관계, 건강, 재정, 시간,

말과 행동 등) 잠언은 지혜의 근본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1:7; 9:10)이라고 합니다. 또한 그 지혜가 하나님과의 관계뿐 아니라 부부, 자녀, 부모, 이웃, 사회 등 모든 관계 속에서 드러나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내가 맺고 있는 여러 관계들 가운데 가장 약한 관계는 무엇입니까?

1. The Preacher describes life under the sun as "vanity and a striving after wind" (Ecclesiastes 1:14). Is there a sense of emptiness or a recurring frustration you have experienced recently? What did it stir up in you?
2. The Preacher tells us that while the world's toil and pleasures are ultimately empty, we can still find genuine joy in the gifts God gives. When did you most recently experience joy through one of God's gifts — a relationship, your health, an opportunity, time, the natural world, or something else? And how did you come to recognize it not merely as a good thing, but as a gift from God?
3. The Preacher urges us to remember our Creator in the days of our youth, and the Song of Songs calls us to guard and wait for love that is pure and true. This week, in what specific area of your life will you put into practice the wisdom of fearing the Lord — whether in your relationships, health, finances, use of time, or the words you speak and the choices you make?

### **기도 Prayer**

서로의 기도 제목을 나누며 함께 기도합니다.

Share prayer requests with one another and pray together.

**오늘의 감사 기도 Today's Prayer of Thanksgiving**

**주기도문으로 가정예배를 마칩니다. Close family worship with the Lord's Prayer.**